

보도 희망 일시	배포 즉시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사 운영위원회
	학봉사 사무국 전화: 880-6866, 이메일: hakbongprize@snu.ac.kr

배포일: 2024.11.28.(목)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9회 학봉사' 시상식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2월 5일(목) 오전 1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룸에서 제8회 학봉사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학봉사는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사학회의 후원, 논문공모·연구지원부문에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의 협조를, 언론보도 부문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협찬을 받아 논문공모·연구지원부문, 법학논문, 언론보도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 논문공모·연구지원 부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젠더문제와 관련한 사회의 현상과 문제의 근원을 분석하는 글을 찾고자 “한국사회와 젠더”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였다. 다수의 응모작 중에서 심사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위원 김호기, 전종익, 김주현, 김효진, 김보명)의 블라인드 방식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공모 부문에서 장려상 3편을, 연구지원 부문에서 지원작 2편을 선정하였다.
- 법학논문 부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전국 25개 법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논문을 공모하였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인섭/ 위원 김도균, 문재완, 이계정, 홍영기)의 블라인드 방식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하였다.

□ 또한, 언론보도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을 추천받아, 심사위원회(위원장 신각수/ 위원 정재정, 오태규, 이면우, 양인집)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1건을 선정하였다.

□ 수상작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상 홈페이지([http://law.snu.ac.kr/hb\\_award/](http://law.snu.ac.kr/hb_awa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논문공모 부문 장려상

사사노 미사에(일본 이바라키 대학 인문사회과학부 현대사회학과 전임강사) “한국의 저출산과 젠더 혁명: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생애 혁신”

김선화(서울가정법원 판사/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편향적 기준인가? -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우춘희(메사추세츠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젠더 관점으로 본 고용허가제”

▲ 연구지원 부문 지원작

정성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정민석(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조은미(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 박지영(미국 텍사스대학교 · 오스틴캠퍼스 정치학과 박사과정), “여성의원의 여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제17대-제21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 및 표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문 부문 대상

천시훈(한양대 법전문),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실증 연구”

▲ 법학논문 부문 우수상

김상균 · 박상현 · 이정민(서울대 법전문), “가격납용 규제를 통한 이윤압착 규율의 문제점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을 중심으로-”

김지훈 · 김동현 · 최용석(서울대 법전문), “타인 토지 위의 불법 건물 미등기매수인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243

140 판결에 대한 평석을 곁하여”

▲ 법학논문 부문 장려상

김정은·정원준(서울대 법전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와 ‘소급적 유효’ 법리의 제문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 5 판결 -”

송창희(서울대 법전원), “보존행위」에서 「과반수 지분권」으로 - 원인무효 공유지분말소에 관한 현 해석론의 문제와 그 대안-”

민소정(서울대 법전원),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대한 법적 고찰”

▲ 언론보도 부문 대상

서현정·고경석·남보라·양승준·이상무·김경준·신은별·김형준·문재연(이상 한국일보 기자), “한일 맞서다 마주서다”

▲ 언론보도 부문 우수상: 木下大資 (기노시타 다이스케)(도쿄신문 기자), “日韓つながる日本人ミュージシャンソウルに移住しロック伝道、日本歌謡の紹介も 외”

※ 문의: 학봉상 운영위원회 사무국 [hakbongprize@snu.ac.kr](mailto:hakbongprize@snu.ac.kr) / 02-880-6866

/끝/.